

## 경영정보 · 건강상식 습득하고 친목 도모 400여명 참석, 성황리 개최

서울특별시인쇄정보산업협동조합 2006년도 경영자 세미나가 서울조합 소속 약 400명의 경영자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6월9일부터 10일까지 강원도 양양에 위치한 남설악 오색그린야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제1주제 - 신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 시행방안과 제2주제 - 병을 고칠까? 피를 고칠까?로 구성된 첫째 날의 경영자 세미나와 둘째 날의 취미활동 등으로 진행됐다.

세미나에 앞서 이충원 이사장은 “2006 경영자 세미나가 조합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바쁘신 가운데 자리를 빛내려 참석하신 내외 귀빈들에 의해 성황리에 개최되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인사말을 전한 뒤 “오늘 이 시간에는 양갑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장이 ‘새로운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지원제도시행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어 두 번째 시간에는 김수경 박사가 ‘병을 고칠까? 피를 고칠까?’란 주제로 강연할 것”이라며 “여러분 모두 내년부터 시행될 공공구매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경영에 활용할 수 있기를 바라며 열정적인 경영을 위해선 건강이 우선되어야 하는 만큼 오늘 강연을 통해 자신의 건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인쇄산업도 이제 세계 인쇄문화산업의 경향 분석을 통해 문화나 디지털 콘텐츠와 접목하여 세계화에 걸맞게 변화해 나가야 할 때이다. 이에 조합은 ‘제1회 서울인쇄대상 및 인쇄문화축제’를 열어 우수 인쇄물 작품을 선정, 서울시포상을 수여함으로써 인쇄문화인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우리 인쇄문화인들의 화합과 우리 인쇄업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다채로운 행사를 서울 시청광장에서 펼쳐 나갈 계획이다”며 “조합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진정한 축제로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 홍우동 대한인쇄문화협회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 5월3일에 개최된 인쇄문화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때 보여준 인쇄업계 1300여명의 참석자들이 보내준 지지와 열정은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뜨거웠다”며



“인쇄업계의 미래가 인쇄문화산업진흥법과 깊은 연관이 있는 만큼 진흥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쇄업계가 지금 대단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 몇 년 전에 개최된 경영자 세미나에 연사로 참가해 이와 같은 인쇄산업의 어려움을 예상하고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협업의 필요성이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같은 인쇄 업종에 일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는 것이 중요한데, 이러한 경영자 세미나가 중요한 매개체가 되므로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성과를 얻어가길 바란다”고 전했다.

서울조합경영자세미나가 서울조합 소속 400여명의 경영자가 참석한 가운데 남서울 오색그린야드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 신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시행방안, 건강관리 상식 강연

세미나 첫 번째 시간에서는 양갑수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공공구매지원팀 부장이 ‘신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시행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양 부장은 이번에 발표된 신중기업제품공공구매지원제도 시행방안은 2005년 7월부터 시행중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성능인증제도, 성능보험제도를 비롯한 2006년도 1월에 도입된 구매목표비율제도, 경쟁의무화제도, 등급별 경쟁제도, 계약이행능력 심사제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와 2007년 1월부터 실시될 직접생산 확인제도,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운동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고 밝힌 후 각 제도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두 번째 시간에서는 한국대체의학연구소장인 김수경 박사의 ‘병을 고칠까? 피를 고칠까?’라는 주제의 건강관련 세미나가 이어졌다. 김 박사는 강연에서 많은 병의 원인이 피가 깨끗하지 못해 발생한다고 설명하고는 이에 피를 맑게 하기 위해 ▶좋은 공기 마시기 ▶2l 이상 물 마시기 ▶소식하기 ▶평심(平心)과 안심(安心)을 유지하기 ▶운동하기 ▶과로와 스트레스를 피하기 등의 6가지 방책을 지킬 것을 당부했다. 한편, 경영자 세미나 둘째 날에는 등산, 관광, 낚시로 구분해 취미활동을 진행함으로써 참가자들의 친목을 다졌다.

조갑준 차장 kjcho@print.or.kr

